정치담론 상에 나타난 은유의 대조 분석 연구*

권연진**

〈차 례〉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국가 은유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은유가 어떠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치담론 상에서의 국가 은유(NATION metaphor)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담론 상에서의 국가 은유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국가는 가족이다] (NATION IS A FAMILY), [국가는 사람이다](NATION IS A PERSON), 그리고 [국가는 건물이다](NATION IS A BUILDING) 은유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프레임(frame)과 Lakoff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4147).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교수

(2004)가 제시한 가족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상화된 모델, 즉, 진보주의적 가족관으로 공감(empathy)과 책임감(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자상한 부모 모델(The Nurturant Parents Model)과 보수주의적 가족관으로 권위(authority)와 통제(control)를 강조하는 엄격한 아버지 모델(The Strict Father Model)을 중심으로 언어 표현들이 은유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대조 분석할 것이다.

은유는 언어와 사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 언어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개념구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은유적 표현과 정치적 사고는 정치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 사고 그리고 문화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술적 노력의 일부가 된다. 문화가 사고에 중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사고유형들을 통찰할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은유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자연스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개념적 은유, 국가 은유, 정치, 정치담론, 프레임, 진보주의, 보수주의

1. 머리말

본 연구는 은유(metaphor)를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고나 개념의 차원으로 보고 우리의 사고과정이 대부분 은유적이며,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적 은유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은유적 언어 사용의 실례인 정치담론(political discourse) 상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들의 개념화 양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은유적 표현은 정치담론 상에서 정당이나 대변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글자 그대로의 표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정치적 논쟁거리나 정치적인 이슈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인지적 장치(cognitive device)로 정치가들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다.

은유적 표현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 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프레임(frame)과 정치담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Lakoff(2004)가 제시한 두 가지 모델인 자상한 부모 모델(The Nurturant Parents Model)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The Strict Father Model)을 중심으로 언어적 표현들이 어떻게 정치담론에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념적 은유 이론에 바탕을 두고 Lakoff(2002, 2004)의 두 가지 모델인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활용하여 정치담론 상에서 국가 은유가 어떠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치담론 상에서의 국가 은유 중 빈도수가 높은 [국가는 가족이다](NATION IS A FAMILY), [국가는 사람이다](NATION IS A PERSON), [국가는 건물이다](NATION IS A BUILDING) 은유가 자상한 부모 모델의 프레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진보주의적 입장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의 프레임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1980년대 들어서면서 Lakoff & Johnson(1980)을 중심으로 많은 인지언어학자들(Lakoff 1987; Johnson 1987 등)은 은유란 하나의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 사고의 과정이며 또한 언어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언어 현상으로 간주한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은유란 한 영역으로부터(근원영역; source domain) 다른 영역(목표영역; target domain)으로의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 정의하고, 이를 Lakoff & Johnson(1980)은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 칭하였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은유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은유의 범문화적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연구(Lakoff & Johnson 1980; Lakoff 1987; Johnson 1987; Kövecses 2000, 2005, 2010), 감정 은유에 대한 연구(임지룡 2006; 나익주 2008), 신체 표현에 대한 은유(임지룡 2016), 정치 은유에 대한 연구(Santa Ana 1999; Lakoff 1992; Cox 2012; Landau & Keefer 2015)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Lakoff(1992)는 부시 전 행정부가 걸프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은유를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Santa Ana(1999)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반 이민 담화에서 이민자가 해충(pest)으로 간주되는 은유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Cox(2012)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을 이동 은유(movement metaphor)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처럼 은유는 정치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참신하고 유머스럽게 전달하기도 하며 화자와 청자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완화하

기 위해 간접적인 전략으로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은유는 정치 담론 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치의 여러 현상들을 개념화함으로써 정책을 이해시키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정치 은유에 대한 연구가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김해연 2016; 김은주 2016; 최재영・권연진 2017 등). 김해연(2016)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들을 용례 분석, 빈도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은주(2016)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언어 표현을 프레임이란 개념을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최재영・권연진(2017)은 Lakoff(2009)의 도덕성 은유를 바탕으로 미국 주요 정치담론 상에 나타난 도덕적 은유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치 은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Lakoff(2004)가 가족에 대해 제시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인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중심으로 언어적 표현들이 은유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은유가 우리의 사고와 일상 언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은 정치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 정치담론 상에서의 프레임

본 연구는 은유적 표현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 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은유란 특정한 사고의 프레임, 즉 프레임을 동원하여 그 사고의 프레임에 의하여 대상을 보게 한다. 따라서 프레임과 정치담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것이다.

프레임이란 용어를 언어학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한 언어학자는 Fillmore(1975: 124)로,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전형적인 예

(prototypical instance)와 연상될 수 있는 언어적 선택 시스템 또는 도식(schema)에서 발견되는 범주(category)와 그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휘-문법적 목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Lakoff(2002, 2004)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프레임을 재해석하여 정치담론에 적용하고 있는 바, 그는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Lakoff 2004: xv).

(1) a. Frames are mental structures that shape the way we see the world. As a result, they shape the goals we seek, the plans we make, the way we act, and what counts as a good or bad outcome of our actions. In politics our frames shape our social policies and the institutions we form to carry out policies. To change our frames is to change all of this.

b. You can't see or hear frames. They are part of what cognitive scientists call the "cognitive unconscious"-structures in our brains that we cannot consciously access, but know by their consequences: the way we reason and what counts as common sense. We also know frames through language. All words are defined relative to conceptual frames.

(1)에서 알 수 있듯이,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다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다시 말해서, 프레임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 행동 방식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Lakoff(2004)는 자신의 저서에서 모든 어휘는 개념적 프레임(conceptual frame) 속에서 정의되며 우리 인간이 어떤 어휘를 떠올릴 때 인간의 뇌는 그 어휘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프레임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학생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 학생들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실험을 하였지만, 성공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학생들은 코끼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을 떠올렸다. 예컨대, 코끼리는 몸짓이 크다거나 귀가 펄럭인다거나, 긴 코와 굵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등등을 머릿속에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개념적 프레임과 관련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한 우리의 두뇌가 그러한 프레임을 사용하므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정치담론 상에서 프레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Lakoff(2004: 3-4)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심기 위해서 특정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세금 구제(tax relief) 정책과 민주당 후보들이 자주 사용했던 세금 감면(tax cut) 정책을 예로 들고 있다. 구제라는 어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긍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이 반복적으로 세금 구제라는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공화당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프레임이 형성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사용한 세금 감면은 공화당이 사용한 세금 구제와 거의 비슷함에도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구제라는 단어만이 활성화되어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세금 정책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대중들의 머릿속에 설정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는 것이다(권연진 2017).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각각 사용한 세금 구제와 관련된 아래 정치 담론을 살펴보자.

(2) a. In addition, because we have strongly capped deductions for the wealthy and closed special interest loopholes, the tax

relief will be concentrated on the working and middle class taxpayer. They will receive the biggest benefit - it won't even be close. (D. Trump, 2016. 09. 15)

b. I think instead we should expand the child tax credit to provide real relief to tens of millions of working families struggling with the costs of raising children - the same families that his plan ignores. And that's just a start. Because the more we do to help working families, the more our entire economy will benefit. (H. Clinton, 2016. 08. 13)

(2)에서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모두 tax relief, tax credit, real relief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사용한 세금 구제라는 프레임을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후보도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은 미국 사회에서 이 프레임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의 세금 구제 정책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고통이나 영웅 등의 개념들과 부합되면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감세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공화당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한 일반 유권자들은 공화당에 유리한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득표에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헌정 초유의 민간인 국정 농단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다. 이에 정권을 잡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을,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 a.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 과거 적폐세력이냐 미래 개혁세력이나 선택입니다. 적폐연대의 정권연장을 막고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문재인,

2016. 04. 03)
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2018. 01. 18)
c. 휴전 이후 가장 엄중한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내정치는 정치보복에만 여념이 없다. (홍준표, 2017. 11. 01)
d.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2018. 01. 17)

(3)에서 알 수 있듯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당은 적폐야 말로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폐단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은 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 안보 및 국방에 전혀 도움이 않는 분풀이식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부정부패는 악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도출되는데 반해,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하는 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몰아감으로써 [편향된 혁신은 보복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도출하려고 한다. 야당은 여당이 진정한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현재 여당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적폐청산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될 뿐임을 강조함으로써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3) Lakoff의 두 가지 모델

Lakoff(2004, 2008)는 미국의 정치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델인 진보주의적 가족관으로 공감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자상한 부모 모델과 보수주의적 가족관으로 권위와 통제를 강조하는 엄격한 아버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진보주의적 가족관으로 대표되는 자상한 부모 모델은 아버지가 좀 더 중립적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자상하게 보살펴야 하며 그 자녀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상하게 보살피도록 길러야 한다. 가족의 최고 권위자이자 통제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기 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세상을 공감과 책임감[1]으로 바라본다.

자상한 부모 모델에서의 도덕성(morality)의 특징들로는 동료와 함께 느끼는 도덕적 공감(moral empathy), 지속적인 공감을 강조하는 도덕적 양육(moral nurturance),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살필 줄 알아야 하는 도덕적 자기 양육(moral self-nurturance), 공동체 내에서 개인적 유대 및 사회적 유대 관계가 도덕 양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도덕적 사회적 양육(moral social nurturance), 도덕적 행복(moral happiness), 도덕적 자기 개발(moral self-development), 도덕적으로 공정한 분배(moral fair distribution), 도덕적 성장(moral growth), 도덕적 자기 이익(moral self-interest) 등이다(Lakoff 2002: 115-131). 진보주의의 자상한 부모 모델과 맥을 같이하면서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

1) 공감이란 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이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상상하고, 따라서 타인을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능력이며, 책임성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공감을 바탕으로 된 행동이다(Lakoff 2006: 53).

반면에 보수주의적 가족관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아버지 모델은 세상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곳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엄격한 아버지가 필요하며 아버지는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고 자녀들을 그릇된 길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질서를 리드하는 국가이고 악으로부터 선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였다.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의 도덕성의 특징들로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올바른 시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도덕적 힘(moral strength),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 계층적 계급 사회를 합법화하는 도덕적 질서(moral order),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인생에서 선택한 길을 안내해 주는 도덕적 경계(moral boundary), 사람들의 성격을 결정해주는 도덕적 본질(moral essence),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완전성(moral wholeness), 사회에서 부도덕한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한다는 도덕적 순결(moral purity), 도덕적인 사람은 건강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도덕적 건강(moral health),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도덕적 자기 이익(moral self-interest) 등이다(Lakoff 2002: 71-94).

Lakoff(2002, 2004)가 지적했듯이, 미국 정치담론에서 보수주의 프레임은 엄격한 아버지 모델의 여러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보수주의가 세금 구제 프레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국민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영웅인 아버지로서 구제 프레임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3. 국가 은유

본 장에서는 정치담론 상에서의 국가 은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국가는 가족이다], [국가는 사람이다],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를 Lakoff(2002, 2004)의 두 가지 모델의 관점에서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1) [국가는 가족이다] 은유

[국가는 가족이다] 은유는 전 세계를 통해 정치담론 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은유이다. Lakoff(2006: 49)에 따르면, 정치적 신념은 가정을 통해 구조화되고 이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통제와 사랑 그리고 보호를 받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배우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릴 적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가를 가족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가족이라고 은유적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motherland, fatherland, founding fathers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정치적인 세계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체의 세계관을 구조화하고 프레임을 체계화하게 된다.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가족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가족이다] 은유에 있어서 근원영역의 구성 요소들과 목표영역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대응관계, 즉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 [국가는 가족이다] 은유의 사상 관계

근원영역		목표영역
가족	⇒	국가
자녀	⇒	국민
부모	⇒	정부
가정교육	⇒	공공교육
부양행위	⇒	경제활동
가정에서의 규율	⇒	국가의 법체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	⇒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

위에서 근원영역으로서 가족, 자녀, 부모는 목표영역으로서 국가, 국민, 정부로 각각 사상된다. 마찬가지로 가정교육은 공공 교육으로, 부모의 자식 부양행위는 국가의 경제활동으로 사상되며, 가정에서의 규율은 국가에서의 법체계로 사상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로 은유적 사상 관계가 적용된다.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는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a.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B. Obama, 2004. 07. 27)
b. We the People have remained faithful to the ideals of our forbearers, and true to our founding documents. (B. Obama, Inaugural Address, 2009. 01. 20)
c. This is a direct affront to our Founding Fathers, who wanted America to be strong, independent and free. (D. Trump, 2016. 06. 28)
d. We are all joined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and your suffering is our burden also. (D. Trump, 2018. 02. 15)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친근한 감정을

시작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위의 (5)에서 알 수 있듯이, brother, sister, forefathers, founding father(s), one American family 등과 같은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다.

Lakoff(2002)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은 저항력이다](MORALITY IS STRENGTH) 은유를 선호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도덕성은 양육이다](MORALITY IS NURTURANCE) 은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는 정치적 논쟁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데 반해, 후자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도덕적 저항력(MORAL STRENGTH) 은유에서 가족은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믿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도덕성은 주로 훈육을 통해 배우고 학습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육(NURTURANCE) 은유에서 가족은 서로를 도와야 할 도덕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훈육이 아닌 양육을 통해 도덕성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한다(Kövecses 2006: 141-142).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정치담론 상에서 은유가 어떻게 개념화되는지를 살펴보자. 자상한 부모 모델로 대표되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연설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은유는 [국가는 가족이다] 은유로 알려져 있다(Lakoff 2008, 2014; Lakoff & Wehling 2012). 앞서 논의했듯이, 자상한 부모 모델에서는 공감과 양육, 공정한 분배와 도덕적 성장 등을 중요시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점은 진보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연설문에서 두드러진다.

(6) a. We recall that <u>what binds this nation together</u> is not the colors of our skin or the tenets of our faith or the origins of our names. (B. Obama, 2013. 01. 21)

b. Like any family, our American family is strongest when we cherish what we have in common, and fight back against those who would drive us apart. (H. Clinton, 2015. 06. 13)
c. What are the best ways to nurture startups outside the successful corridors, like Silicon Valley? (H. Clinton, 2015. 07. 13)

(6)에서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양육,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미국 국민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함으로써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수주의적 가족관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의 [국가는 가족이다] 은유가 정치담론 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이 모델에 따르면, 가족이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엄격한 아버지가 필요하며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며 부양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국민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영웅인 아버지로서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 연설문에서 이러한 프레임이 잘 나타나고 있다.

(7) a. My fellow citizens, at this hour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G. Bush, 2003. 03. 19)
b. We will defend our freedom. We will bring freedom to others. And we will prevail. May God bless our country and all who defend her. (G. Bush, 2003. 03. 19)
c. I will fight for every child in this country who deserve better futures. (D. Trump, 2016. 09. 09)
d. Crucially, I will also fight for the American family and American family values. The family must be at the center of

any anti- poverty agenda. (D. Trump, 2016. 09. 09)

(7a)에서 미국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며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는 세계를 수호하는 엄격한 아버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7b) 역시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7c-d)에서 미국 가족과 가족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강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2)]

2)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는 국가의 외교 정책에서 중심적인 은유 중의 하나로 많은 정치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람으로서의 국가 은유는 보편적이며 아주 강력하고도 정교화된 은유 체계의 일부분이다. 이 은유는 국익의 개념과도 때때로 동일시되는데, 마치 사람이 건강하고 강하기도 하며 때로는 허약하듯이, 국가 역시 경제적으로 강건하고 군사적으로 강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ohrer 1991, 1995).

국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에 있어서 근원영역의 구성 요소들과 목표영역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

2)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는 정치담론 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은유로 국가는 가족이며, 정부는 부모이고, 국민은 자녀들이다. 진보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담론에서는 미국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거나 공정한 분배나 도덕적 성장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반해,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 담론에서는 국가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영웅으로서의 강한 아버지상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8)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의 사상 관계

근원영역		목표영역
신체	⇒	국가, 영토
피부	⇒	지역적 경계
주먹, 근육	⇒	군사력, 경제력
호흡	⇒	경제활동
건강	⇒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건함
허약함	⇒	경제적, 군사적으로 약함
먹는 행위	⇒	영토 확장
이웃	⇒	이웃 국가
친구	⇒	동맹
성폭행	⇒	침공(침략)

위에서 근원영역으로서 신체와 피부는 목표영역으로서 국가나 영토, 지역적 경계로 사상되며, 건강함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강건함으로 사상된다. 또한 이웃과 친구는 이웃 국가와 동맹으로, 성폭행은 국가의 침공 또는 침략으로 사상된다.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담론에서 하나의 국가를 사람의 특징이나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간주하고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3]를 자주 사용하는데, 정치담론에서 개념적 은유 [국가는 사람이다]가 이러한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존재론적 은유의 특별한 형태로 의인화(personification)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아닌 개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인간의 동기 부여나 특성, 활동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정치담론 상에서 자주 사용된다(Chilton 2004; Charteris-Black 2004; Lakoff 2004, 2008). 인간의 특징, 일상생활이나 정치적 주제에서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

3) 존재론적 은유란 사건, 활동, 정서, 생각 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보다 구체적인 개체나 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Lakoff & Johnson 1980).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물건이나 물질과 같은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여 은유를 생성하는 것이다.

게 되는 조건들은 정치적 이슈와 직결되어 있다. 인간은 가치나 생활양식, 여러 가지 행동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활동은 사람의 인생과도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국가가 생명체를 가진 유기체로 사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대상인 국가를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적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9) a. America became the world's mightiest industrial power, saved the world from tyranny in two world wars and a long cold war. (B. Clinton, 1997. 01. 20)
b. It's in the interest of America to keep an open mind about Trump's presidency. (H. Clinton, 2016. 11. 09.)
c.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 friend or foe -- will find that America is strong, America is proud, and America is free. (D. Trump, 2017. 03. 01)

(9)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휘들인 mightiest, save, open mind, strong, proud 등을 미국이라는 국가에 사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정치담론에서 미국을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써 미국을 강대국 혹은 세계를 구조하는 국가로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 예컨대, (9a)에서 mightiest와 save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성숙되고 강한 국가이며 세계를 구조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9b)에서 미국이 open min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9c)에서 proud와 free는 미국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자기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사람으로서의 국가 은유가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개념화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자. 먼저 자상한 부모 모델을 지향하는 진보주의 진영의 정치담론을 살펴보자.

(10) a. America is a friend of each nation, and every man, woman and child who seeks a future of peace and dignity. (B. Obama, 2009. 01. 20)
b. Think about the America within our reach: a country that leads the world in educating its people; an America that attracts a new generation of high-tech manufacturing … (B. Obama, 2012. 01. 24)
c. We believe in a generous America, in a compassionate America, in a tolerant America open to the dreams of an immigrant's daughter who studies in our schools … (B. Obama, 2012. 11. 07)
d. The America I know is full of courage, and optimism, and ingenuity. The America I know is decent and generous. (B. Obama, 2016. 07. 27)

미국이라는 국가를 인간의 특징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로 간주하고 있다. (10a)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다른 나라, 남녀노소의 친구, 즉, 사람으로 간주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0b)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인도하고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c)에서도 미국이라는 국가를 아량이 넘치고 동정심이 있는 관대한 국가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d)에서 사람의 다양한 성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인 courage, optimism, ingenuity, decent, generous 등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사람으로 은유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은유적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상한 부모 모델의 프레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써 개인이 전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각 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제 보수주의적 입장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의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가 정치담론 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도 사람으로서의 국가 은유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11) a. An Iraq permitted to swallow Kuwait would have the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s well as the arrogance, to intimidate and coerce its neighbors. (G. Bush, 1990. 09. 11)
b. Saddam Hussein's unprovoked invasion, his ruthless, systematic rape of a peaceful neighbor, violated everything the community of nations holds dear. (G. Bush, 1991. 01. 30)
c. We can make new friends, rebuild old alliances, and bring new allies into the fold. (D. Trump, 2016. 09. 07.)
d. No challenge can match the heart and fight and spirit of America. We will not fail. (D. Trump, 2017. 01. 20.)

위의 예들은 모두 [국가는 사람이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11a)에서의 swallow, arrogance, intimidate, coerce와 같은 어휘들은 모두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가를 사람에 비유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neighbor 역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쿠웨이트라는 국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b)에서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라는 국가를 침공한 것을 마치 이웃을 성폭행(rape of a peaceful neighbor)한 것으로 은유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c)에서도 friend와 alliance

같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11d)에서는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미국의 열정, 투쟁, 그리고 정신(heart and fight and spirit)과 같은 어휘들은 모두 국가를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지금까지 두 모델에서의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를 살펴보았다. 자상한 부모 모델의 프레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전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반해,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권위와 통제, 그리고 엄한 아버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보수주의가 세금 구제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국민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영웅으로서의 아버지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

건물(building)이라는 근원영역은 다양한 목표영역에 적용되는데, 논쟁, 이론과 관계, 회사, 경력, 사회 집단, 인생 등의 목표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논쟁과 이론, 회사 등에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은 구조를 지닌 인생과 사회 집단을 건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uild, construct, strong foundation, without foundation, rock the foundation, in ruin, lay the foundation 등의 표현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Kövecses, 2010/2002). 특히 Lakoff & Johnson(1980)이 [논쟁은 건물이다](AN ARGUMENT IS A BUILDING) 은유를 제안한 이후 건물 은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는데(Chilton & Ilyin 1993; Goatly 1997; Lu & Ahrens 2008; Wong, Yap & Tay 2016), 특히 Chateris-Black(2004)는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의 정치인들이

정치담론에서 사용한 정치 은유의 약 25% 정도가 건물 은유에 해당될 만큼 널리 퍼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가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며 사회조직으로서의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추상적인 복합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 국가를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건물로 간주하여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국가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는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에 있어서 근원영역의 구성 요소들과 목표영역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 가능하다.

(12)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의 사상 관계

근원영역		목표영역
건물	⇒	국가
건설업자	⇒	지도자
초석, 기초	⇒	토대, 기반
건물의 손실	⇒	인수, 탈취
건물 침입자	⇒	공산주의자
건물의 건설 과정	⇒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건물을 설계하는 것	⇒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

위에서 근원영역으로서 건물, 건설업자, 기초는 목표영역으로서 국가, 지도자, 토대로 각각 사상된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손실은 인수 또는 탈취로, 건물 침입자는 공산주의자로 사상되며,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사상된다. 이처럼 은유적 표현은 구체적인 대상인 건물의 개념영역과 추상적인 것을 창조하는 개념적 은유 사이의 사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건물로서의 국가 은유가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

델에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개념화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자. 먼저 자상한 부모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진보주의 입장에서의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를 살펴보자.

(13) a. The genius of our founders is that they designed a system of government that can be changed. (B. Obama, 2007. 02. 10)
b. I want us to take up the unfinished business of perfecting our union, and building a better America. (B. Obama, 2007. 02. 10)
c. Ours is a fight to restore the values that built the largest middle class and the strongest economy the world has ever known. (B. Obama, 2012. 09. 06)
d. Let us talk about the USA, because 240 years ago we started with a piece of paper. It was a blueprint for a new society … (H. Clinton, 2016. 08. 01)

위의 예에서 designed a system of government, building, restore, blueprint 등의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인 국가를 구체적인 건물로 간주하여 개념화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집(건물)으로 간주하여 build 또는 building이라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건물)이라는 대상은 사람에게 포근하면서도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처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건물로서의 국가 은유와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미래의 계획이나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더 강한 경제력을 키우고자 또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할 때 튼튼한 건물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보수주의 입

장에서의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를 살펴보자.

(14) a. Palestinian legislators and officials, humanitarian and international workers, must be allowed to go about the business of building a better future. (G. Bush, 2002. 06. 25)
b. These are, in fact, the pillars of a sou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Unlike my opponent, my foreign policy will emphasize diplomacy, not destruction. (D. Trump, 2016. 09. 08)
c. My administration is laying a new foundation to build a future of economic prosperity and achieve American Greatness. (D. Trump, 2017, 05. 27)
d. It's time to rebuild our country – to bring back our jobs, to restore our dreams, and yes, it's time finally to put America first," (D. Trump, 2017. 06. 07)

보수주의 정치인 역시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주의 정치인들도 정치담론 상에서 진보주의 정치인이 사용하고 있는 building, pillar, lay a new foundation, rebuild, restore 등의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를 건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가족이다]와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의 경우,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 사이에는 은유적 표현의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진보주의 성향의 정책과 보수주의 성향의 정책 노선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진보주의는 대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의 불평등은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수 없는 근원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진보주의는 성장보다 분배를 더 중요시 여긴다. 또한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정부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한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 여긴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의 경우,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 사이에는 은유적 표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유적 표현들이 자국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된 긍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두 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유적 표현 역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은유가 어떠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치담론 상에서의 국가 은유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치담론 상에서 국가 은유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국가는 가족이다], [국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제로 은유가 정치인과 일반 대중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므로 정치담론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유가 우리의 일상 언어와 사고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은유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은 정치담론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유가 정치담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코자 Lakoff(2004)가 가족에 대해 제시한 2가지 모델인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중심으로

언어적 표현들이 어떻게 은유적으로 이해가능한지를 대조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가족이다]와 [국가는 사람이다] 은유의 경우, 자상한 부모 모델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 사이에는 은유적 표현의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는 건물이다] 은유의 경우 두 모델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았다. 자상한 부모 모델에서는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는 세금 구제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국민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영웅으로서의 아버지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 사고 그리고 문화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술적 노력의 일부가 된다. 문화가 사고에 중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사고유형들을 통찰할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은유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자연스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권연진, 「프레임과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53, 2017, pp. 85–108.

김은주, 「정치은유와 프레이밍: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중심으로」,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pp. 149–161.

김해연, 「언론담화 선거기사의 비유적 표현의 은유 이론적 분석」, 『언어연구』 52–3, 2016, pp. 393–420.

나익주, 「사랑의 개념화: 문화적 변이 가능성 탐구」, 『담화 · 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pp. 79–88.

임지룡,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2006, pp. 29–60.

임지룡,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해석」, 『배달말』 59, 2016, pp. 1–43.

최재영 · 권연진, 「정치담론에서의 도덕적 은유에 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59–3, 2017, pp. 155–175.

Chilton, P. & M, Ilyin, "Metaphor in Political Discourse. The Case of the Common European House," *Discourse & Society* 4–1, 1993, pp. 7–31.

Cox, J., "Politics in Motion: Barack Obama's Use of Movement Metaphors," *American Communication Journal* 14–2, 2012, pp. 1–13.

Fillmore, C.,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In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erkeley: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75, pp. 123–31.

Lakoff, G., "Metaphors and War: The Metaphor System Used to Justify War in the Gulf," In Putz, M. (ed.). *Thirty Years of Linguistic Evolu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992, pp. 463–481.

Landau, M. & L. Keefer., "The Persuasive Power of Political Metaphors," In J. P. Forgas, W. Crano, & K. Fiedler (eds.). *Social Psychology and Politics*. New York: Taylor & Francis, 2015, pp. 129–142.

Lu, L. W–L. & K, Ahrens., "Ideological Influence on BUILDING metaphors in Taiwanese Presidential Speeches," *Discourse & Society* 19–3, 2008, pp. 383–408.

Rohrer, T., "To Plow the Sea: Metaphors for Regional Peace in Latin America,"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6, 1991, pp. 163–181.

Rohrer, T., "The Metaphorical Logic of (Political) Rape: The New Wor(l)d Order,"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0–2, 1995, pp. 115–137.

Santa Ana, O., "Like an Animal I was Treated: Anti–Immigrant Metaphor in US Public Discourse," *Discourse & Society* 10–2, 1999, pp. 191–224.

Wong, S, F. H. Yap & D. Tay., "The Journey Metaphor in the 2015 Singapore Election Campaign," A Paper Presented at the RaAM Conference 2016, 2016, July 4.

2. 단행본

Charteris-Black, J., *Corpus Approaches to Critical Metaphor Analysis*, New York: Macmillan, 2004.

Chilton, P., *Analysing Political Discourse: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2004.

Goatly, A., *The Language of Metaphor*, London: New York: Rougledeg, 1997.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Kövecses, Z.,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Kövecses, Z., *Metaphor in Culture: Universality and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Kövecses, Z.,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Kö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2002.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Lakoff, G., *Metaphor, Morality, and Politics, Or, Why Conservatives Have Left Liberals In the Dust*, George Lakoff copyright. http://www.wwcd.org/ issues/Lakoff.html), 1995.

Lakoff, G.,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Lakoff, G.,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Chelsea Green Publishing, 2004.

Lakoff, G.,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a Progressive's Handbook*, Farrar Straus & Giroux, 2006.

Lakoff, G., *The Political Mind: Why You Can't Understand 21st-Century American Politics with an 18th-Century Brain*, New York: Viking Penguin. 2008.

Lakoff, G., *The ALL NEW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Publishing, 2014.

Lakoff, G.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Lakoff, G. & E. Wehling., *The Little Blue Book: The Essential Guide to Thinking and Talking Democratic*, New York: Free Press, 2012.

(**투고일**: 2018. 2. 26. **심사완료일**: 2018. 3. 21. **게재확정일**: 2018. 3. 23.)

권연진
소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언어정보학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번호: 051) 510-2026
전자우편: yeonjin@pusan.ac.kr

[Abstract]

A Study on Contrastive Analysis of Metaphors in Political Discourse

Kwon, Yeon-Jin(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NATION metaphor] in the political discourse based on the conceptual metaphor theory, expecially focusing on [NATION IS A FAMILY], [NATION IS A PERSON], and [NATION IS A BUILDING] metaphor. In fact, metaphor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because it allows politicians and the general public to explore new ways of looking at things. In order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metaphor to political discourse, the concept of frame was applied to achie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 analyze how linguistic expressions are metaphorically understandable by using Lakoff's two different idealized models, the "Strict Father Model" which emphasizes authority and control as a conservative family, and "The Nurturant Parents Model" which emphasizes empathy and responsibility as a progressive family. This study is part of the academic effort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s of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Cultures can play a central role in thinking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insight into language users' thinking styles by using language. This leads to a natural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by examining metaphors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Key words: conceptual metaphor, nation metaphor, politics, political discourse, frame, liberalism, conservatism